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백순근*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입학 전형자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그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 즉 ① 수능의 명칭 및 성격, ② 수능의 내용, ③ 수능의 출제 방법, ④ 수능의 시행 방법 및 절차, ⑤ 수능 결과의 활용으로 나누고, 각 측면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그것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전형과 대학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 주요어 :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초공통시험, 재택 출제 방식, 문제은행, 표준점수

I. 들어가는 말

흔히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중시되고, 그러한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보다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다양화·전문화·특성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산업구조의 특징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매일경제신문사, 1998; Drucker,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나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 등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의 지향이다(교육부, 1998). 즉,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수·학습·평가 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와 그에 따른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및 교수·학습·평가 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학입학전형은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며, 대학으로서는 대학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대학 교육을 통해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입학전형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초·중등학교의 문제요,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 교육이나 초·중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전형의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전형자료 등이 어떠한지 하는 것이 초·중등학교 교육에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어떠한 학생들을 선발하느냐가 곧 대학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관련되는 정책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되어왔다(백순근, 2001a, b, 2003c; 유영제, 2000; 이종승, 2000).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는 2004학년도 수능의 출제와 관리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출제위원 선정 과정상의 문제, 출제진 명단 사전 유출 의혹, 시험문항 사전 유출 의혹, 복수정답 인정 및 인정 과정의 타당성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에 대한 대처 과정 또한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조선일보, 2003.11.28).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05학년도에도 현행 수능의 기본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a), 향후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수능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수능 자체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4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지만, 올해도 재수생들의 강세 속에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혹은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만 있을 여유가 없다. 그것과는 별도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다행스러운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출제나 시행의 '관리'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행의 수능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수능의 성격과 특성, 시행 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것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현행 수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① 수능의 명칭 및 성격, ② 수능의 내용, ③ 수능의 출제 방법, ④ 수능의 시행 방법 및 절차, ⑤ 수능 결과의 활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수능의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전형과 대학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II. 현행 수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현행 수능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1993년부터(혹은 1994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수능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초·중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표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현행의 수능은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1년에 1회만 시행되고 있고,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출제되는 일종의 종합시험이며, 대학 진학 희망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응시해야 하는 일종의 필수시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는 이러한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평가방법이 획일화·대중화·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백순근, 2003a). 현행 수능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① 수능의 명칭 및 성격, ② 수능의 내용, ③ 수능의 출제 방법, ④ 수능의 시행 방법 및 절차, ⑤ 수능 결과의 활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능의 명칭 및 성격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능이라는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즉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시험’에 목을 매달고 있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대학이 책임지고 파악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등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선 고교가 고유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이라는 인식보다 수능 준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출제에 고교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으로 수능의 이름을 가칭 ‘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

이나 혹은 ‘학력고사’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름변경과 함께 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수능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언어, 수리, 사회·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a).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능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 수학에 기초가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학업능력이다. 즉, 수능은 고등학교와 그 이전의 학교 교육에서 학습된 학력과 대학 수학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둘째, 수능은 고등학교의 특정 교과목별 시험이 아니라 여러 교과목의 공통적인 목표와 내용을 망라한 통합교과적인 소재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다. 셋째,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시험의 출제에 이용되는 자료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이외의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습자료를 망라하게 된다. 넷째, 수능은 사고력을 중심으로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즉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의 해석, 원리의 응용,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판단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의 수능은 교과목별 학력고사(achievement test, 현재의 성취수준을 재는 검사)와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 미래의 성취기대수준을 재는 검사)를 통합한 형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교과적인 소재와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의 수능은 고등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운 교과목에 대한 학력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 교육에 적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학업적성검사도 아닌 애매모호한 시험이다. 사실 수능이 도입될 때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험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나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진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는 각 교과목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수능은 통합교과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각 교과목별 내신과 통합교과적인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는데 비해, 재학생들은 수능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짙다(박경숙 외, 1995; 박도순 외, 2001; 백순근, 2003a).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험의 성격을 교과목별 학력고사로 하거나 아니면 학업적성검사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國家水準 教育課程, National Curriculum) 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험의 성적을 교과목별 학력고사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학업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교과목별 학력고사인 대학입시센터시험이나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체제가 없는 미국의 경우에는 학업적성검사라고 할 수 있는 SAT I (Scholastic Assessment Test I)과 교과목별 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는 SAT II(Scholastic Assessment Test II)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백순근, 2001).

2. 수능의 내용

2004학년도에 시행된 수능의 내용(혹은 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과 문항수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시험 문항의 형태는 5지 선다형이며, 정답이 2개 이상인 문항도 있다. 다만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20% 포함하되 모든 문항의 답은 OMR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각 문항당 배점은 언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점, 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b).

<표 1> 2004학년도 수능의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배점	문항수	비 고
1	언어	08:40~10:10 (90분)	120	60	◦ 듣기문항 6개 포함 ◦ 08:40부터 15분 이내
2	수리	10:40~12:20 (100분)	80	30	◦ 주관식 20% 포함
3	사회탐구 과학탐구	13:20~15:20 (120분)	120	80	
4	외국어(영어)	15:50~17:00 (70분)	80	50	◦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 15:50부터 20분 이내
계	5개 영역	380분	400점	220문항	
5	제2외국어 (선택)	17:30~18:10 (40분)	40	30	◦ 원하는 수험생만 실시 ◦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개 과목 중 택1

현행 수능 내용의 문제점은 각 영역별로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한 종류의 시험뿐이고, 또 문항의 형태가 선다형(選多型)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200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경우에 교과목에 대한 선택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특정 과목에서 수준이 다른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능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획일적인 시험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변별할 수 없다. 학생의 소질이나 수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난이도가 서로 다른 시험들을 개발·시행 해야 한다. 예컨대, 같은 내용이지만 난이도에 따라 쉬운 형태의 시험과 어려운 형태의 시험으로 이원화하거나, 혹은 쉬운 시험, 중간 정도의 시험, 어려운 시험 등으로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과목의 시험이라도 수험생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것 중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다루는 내용이 서로 다른 다양한 유형의 시험을 개발·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이라도 자신의 소질과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다른 것 중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학업적성시험에 해당하는 비교적 쉬운 SAT I (Scholastic Assessment Test I), 교과목별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중간 정도의 SAT II (Scholastic Assessment Test II), 매우 어려운 교과목별 학력고사라 할 수 있는 AP (Advanced Placement) 시험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박도순 외, 2001).

특히 수능을 ‘기초공통시험’과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분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가공통기본교육과정(國民共通基本教育課程)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목선택교육과정(教科目選擇教育課程)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 이미 발표된 2005학년도 수능 계획안에 따르면, ‘기초공통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1)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고시된 것으로,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이다(교육부, 1997). 초등학교 1, 2학년은 2000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2001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2002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2003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10개 기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를 중심으로 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끝나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 관심, 진로, 능력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2~3학년의 교과목 선택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능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초·중·고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을 높여 공교육 부실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능의 출제 및 관리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 그 시행 자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2005 수능 계획안에 따르면 출제 과목 수만 해도 51개에 이른다(<표 2> 참조). 이때 과목당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각각 5명씩이라고 해도 도합 510명이나 되고, 여기에 진행요원과 관리요원을 합하면 적어도 550명이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약 1달간 감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금상태에서 제대로 출제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 많은 과목의 시험지를 인쇄하거나 시험을 시행·채점하고 성적을 보고하는 작업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백순근, 2003b).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공통필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한 ‘기초공통시험’과 교과목선택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공통시험’을 실시하되, ‘교과목별 선택시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상위 몇 퍼센트 이내 혹은 ‘기초공통시험’ 몇 점 이상 등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 수능의 출제 및 관리의 융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 범위 (계획안)

영역		출제 범위
언어		·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리 (택1)	‘가’형	· 수학 I + 수학 II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3개 과목 중 택 1)
	‘나’형	· 수학 I
외국어(영어)		·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1)	사회탐구	·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11개 과목 중 최대 택 4
	과학탐구	· 물리, 물리II, 화학, 화학II, 생물, 생물II,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8개 과목 중 최대 택 4
	직업탐구	· 농업정보관리, 정보기술기초, 컴퓨터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4개 컴퓨터 관련 과목 중 최대 택 1 ·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입문,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수산일반, 해사일반, 해양일반, 인간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일반, 프로그래밍 13개 전공 관련 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한문		·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8개 과목 중 택 1

한편, 문항의 형태도 선다형이 아닌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백순근, 2002)²⁾. 참고로 영국의 수능이라 할 수 있는 GCSE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의 고등 사고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SAT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실제로 작문하도록 하는 쓰기시험을 도입하기로 계획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수능의 출제 방법

수능의 출제 방법은 한 마디로 ‘감금식(監禁式)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장소에서 약 30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각 영역별 출제진들이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이다. 약 30일 정도의 감금 기간은 약 15일 내외의 출제 및 검토 기간과 약 15일 내외의 인쇄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금 기간 동안은 시험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 장소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출은 물론 외부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시험 문항의 출제가 끝나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감금 상태에 있게 된다.

출제진들은 출제 장소에 입소한 후 약 1주일에 걸쳐 문항의 초안을 완성하며, 출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약 1주일 이후에 출제진과는 별도로 검토진들이 출제 장소에 합류하여 문항의 검토 및 수정작업을 돕는다. 출제진과 검토진은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험의 형태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문항들을 이용하되 선택지의 위치만을 다르게 한 홀수형과 짝수형의 2개 유형으로 제작한다.

2) 선다형을 포함한 선택형(選擇型) 검사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선택형 검사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나,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력, 통합력, 정보 수집력 및 분석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 ② 선택형 검사로는 학생들의 인지구조의 변화나 이해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며,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 ③ 선택형 검사에서는 출제자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지 중에서만 정답을 찾도록 하기 때문에, 비록 학생들이 교과서나 교사의 수준을 능가하여 더 좋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 ④ 선택형 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비교적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하기 쉬운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정의적 영역이나 심동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게 된다.
- ⑤ 선택형 검사는 제공되는 답지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추측의 요인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수능의 출제 방법과 관련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은 ‘재택(在宅) 출제 방식’, 즉 출제자들이 특정 장소에 감금되지 않고 집이나 연구실 등에서 자유롭게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감금식 출제 방식은 유능한 출제진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험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출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감금식 출제 방식은 특정 장소에 감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들이 출제진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비록 출제진에 참여했다고 해도 출제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약 15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제된 문항의 질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출제진이나 검토진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친척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요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잠시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감금식 출제 방식을 이제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재택출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감금식 출제 방식이 아닌 재택 출제 방식을 택한다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면서 출제하고 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질적으로 좀더 좋은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SAT나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 재택출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항을 출제하고 또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능을 1년에 여러 번 시행한다거나 다양한 유형이나 수준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item bank)식 운영이 필요하며, 문제은행식 운영을 위해서도 재택 출제 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능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각 교과목별로 검사요강(檢査要綱, test manual)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EBS 방송 등을 통해 출제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검사가 도입될 경우에는 검사 시행에 앞서 자세하면서도 구체적인 검사요강을 제작·배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으나, 10년의 역사를 가진 수능의 경우에는 아직도 검사요강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진으로 참여한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문제은행식 운영을 위해서는 검사요강의 제작·배포 및 연수를 통해 출제 가능한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제진의 자질 문제나 사전 문제유출 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항 출제진과 검토진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되,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선정하는 선정팀은 출제진이나 검토진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복수정답 시비 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수능의 시행방법 및 절차

현행 수능의 경우 기본정책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고, 그 정책에 따른 시행만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다. 이때 평가원은 시험의 출제 및 인쇄·배부, 그리고 채점 및 성적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교육청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운송·보관하며, 시험의 실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로, 2003년 11월 5일에 시행된 2004학년도 수능의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은 <표 3>과 같다. 시험 장소로는 주로 고등학교를 이용하였으며, 수능의 응시생 수는 대학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학생, 즉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100%에 해당하는 64만여명이 응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b).

<표 3> 2004학년도 수능의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

주요 업무	추진 일정	비고
◦ 시행계획 발표	3. 31(월)	
	6. 11(수)	* 1차 모의평가일
◦ 시험 시행 공고	7. 9(수)	중앙 일간지
◦ 원서 교부 및 접수	8. 27(수) ~ 9. 16(화)	도요일 및 공휴일 제외
	9. 2(화)	* 2차 모의평가일
◦ 원서 처리 및 수험번호 부여	9. 22(월) ~ 10. 8(수)	(17일간)
◦ 시험일	11. 5(수)	
◦ 출제위원장 기자회견	11. 5(수) 09 : 00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 표본 채점 결과 발표	11. 6(목) 14 : 00	
◦ 채점	11. 6(목) ~ 12. 1(월)	(26일간)
◦ 채점결과 발표 기자회견	12. 2(화) 09 : 00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 성적 통지	12. 2(화)	

시험의 시행방법 및 절차의 개선 방안은 수능을 1년에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수능과 같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을 1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은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 1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도 미국의 SAT처럼 1년에 6~7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에 2~3회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최소한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와 같이 ‘추가시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시험의 실시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지필식 시험에서 미국의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나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시험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백순근, 2001c).

그리고, 현 시점에서 수능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수능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이제는 평가원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능에 대한 기본 정책들을 모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다음, 그 정책에 따른 시행만을 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몇 개월 만에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수능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설사 자주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가원이 수능에 대한 정책수립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현 수능의 내용이나 출제 및 시행 방법 등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수능을 개혁하여 수능의 명칭을 바꾸거나, 성격을 분명히 하거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하거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연 2회 이상 실시하거나, 채택 출제방식을 도입하거나, 문제은행을 구축·운영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시험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수능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험을 평가전문기관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나 ACT(American College Testing)에 완전히 위임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허경철 외, 1997). 그리고 2003년 현재 미국의 ETS의 직원이 약 2500명, ACT의 직원이 약 1300명 정도임을 감안하여, 수능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서 현재 130여명에 불과한 평가원의 직원을 대폭 늘리고, 행·재정적인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ACT, 2003; ETS, 2003).

한편, 수능의 시행을 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평가원과 함께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이 주관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능의 관리를 시·도교육청이나 일선 고등학교가 주관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수능의 명칭과 함께 이 또한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보다 대학입학시험 준비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보다는 국가가 대학입학시험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대학입학시험을 대학이 주관하도록 하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제도를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센터와 해당 대학이 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희망자의 약 50%만이 대학입시센터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약 50%만이 그 시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입전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5. 수능 결과의 활용

수능의 결과는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그리고 개별 수험생은 자신의 성적을 개인별로 통보 받아 확인한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 시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

수능의 결과 활용과 관련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은 수험생에게 원점수(raw sco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표준점수(standardized score)나 혹은 표준점수를 이용한 등급(grade)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수능이 너무 쉬웠다거나 문항의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원점수를 사용하는 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미국의 SAT나 ACT와 같이 표준점수를 사용하거나 영국의 GCSE 등과 같이 등급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영역이나 과목별로 표준점수와 100분위 및 등급만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또한, 수능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일종의 종합시험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 활용을 지양하고, 각 모집단위(학부나 학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영역별 점수를 활용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어 관련 학과는 언어영역 점수를, 영어 관련 학과는 외국어 영역 점수만을 활용하거나 혹은 그 영역의 가산점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적어도 2년 이상으로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위 대학도 대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수능의 결과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Ⅲ. 나가는 말

현행의 수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 4>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선 방안들은 충분한 준비와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

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안들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단위 대학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능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출제나 관리 방식의 개선 만으로는 현행의 수능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능의 이름이나 성격을 포함한 수능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입전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학벌(學閥) 혹은 학력(學歷) 위주의 사회가 아닌 실력이나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될 때 수능을 포함한 대입전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입학이 곧 졸업’이고 ‘졸업이 곧 출세’라는 풍토가 지속되는 한 대입전형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표 4> 현행의 수능과 개선 방안 (요약)

주요 내용	수능(현행)	개선 방안
시험의 명칭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 교육을 위한 시험 -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이용한 시험 - 학력고사와 학업적성검사의 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 혹은 학력고사로 변경 →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시험 - 교과목별 학력고사로 하되, ‘기초공통시험’과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
시험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유형의 시험(내용면) - 단일 수준의 시험(난이도면) -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시험(내용면) - 다양한 수준의 시험(난이도면) -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
시험의 출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금식 출제 방식 (출제진이 최종 문항 선정) - 1회용 문제지 개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 출제 방식 (출제진과 최종 문항 선정 팀 분리) - 문제은행식 운영 방식 도입
시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의 기본 정책을 수립, 평가원에 위탁 시행 - 평가원과 시도 교육청이 시행 - 1년에 1회 실시 - 지필식 시험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원이 정책수립 및 시행 전담 - 평가원과 대학이 시행 - 1년에 여러 번 실시 - 지필식과 컴퓨터식을 병행하여 실시
시험 결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점수(raw-score) 활용 - 시험성적 1년간 유효 - 모든 영역의 점수 활용 -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점수 혹은 등급 활용 - 시험성적 2년 이상 유효 - 특정 영역의 점수 활용 - 대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제7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8).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 교육부
- 매일경제신문사(1998). 지식혁명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박경숙 외(199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도순 외(2001).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연구.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 백순근(2001a).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기 발전 방안. 교육개발, 1·2월호, 20-25.
- 백순근(2001b). 대학입학 전형자료에 대한 논쟁. 한국교육개발원 편, 2000 한국교육평론, 121-133. 한국교육개발원.
- 백순근(2001c).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한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 55-69.
- 백순근(2002). 수행평가: 이론적 측면. 서울: 교육과학사.
- 백순근(2003a). 대입 전형과 수능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 교육진흥, 16(1), 30-36.
- 백순근(2003b). 2005 수능이 걱정된다. 한국일보, 2003년 7월 5일자 칼럼.
- 백순근(2003c). 수능, 명칭·성격규정 다시. 문화일보, 2003년 12월 3일자 칼럼.
- 유영제(2000). 수능제도 다양화해야. 조선일보, 2000년 12월 20일자 칼럼
- 이중승(2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대안. 황정규 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445-45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a).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b).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경철·김신영·백순근·채선희(1997). 국가 교육평가 정책수립 방안 연구: 외국의 교육 평가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ACT(2003). ACT 홈페이지 (<http://www.act.org>)
- ETS(2003). ETS 홈페이지 (<http://www.ets.org>)
- Drucker, P. F.(2002).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NY: St. Martin's Press.

<Abstract>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
-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s -

Sun-Geun Baek*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testing system are critically examined using five sub-criteria (① the title and nature of the test, ② the contents of the test, ③ the item development of the test, ④ the implementation of the test, and ⑤ the use of test scores). Based on those identified problems, the main propose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are as follows:

- 1) The title and nature of the test should be an achievement test rather th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 2) It should be developed into various test types for different ability levels or for different characteristic groups.
- 3) It should be implemented several times in a year.
- 4) It should be developed to test items at home in order to improve their quality as well as developing an item bank.
- 5) A standardized score should be used instead of a raw score.

Sinc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s a quite critical matter for developing education in Korea, the quality of test system should be continually reviewed and improved.

*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